

# 에너지 신기술 광주서 한눈에 본다



지멘스, ABB, GE, 현대차, 효성중공업 등 29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빅스포 2019'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주관사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빅스포 2019가 오는 11월6~8일 사흘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올해 다섯 번째 열리는 빅스포의 주제는 '디지털 플랫폼 (초연결&대격변·Hyper-Connectivity&Mega Shift)'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이어진 디지털 초연결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집중 조명

지멘스·효성중공업 등 290여 기업 참가... 11월 6~8일 개최  
신기술전시회·일자리박람회·열린음악회 등 프로그램 다양

한다. 7만명 넘는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에는 신기술전시회, 국제컨퍼런스, 국제발명특허대전,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빅스포에 참가하는 기업 면면은 화려하다. 지멘스, ABB, GE, 오라클,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과 현대차, 효성중공업, SKT, LS산전, 대한전선, 일진전기, 현대일렉트릭 등 에너지 관련 국내 기업이 대거 참가한다. 39개 글로벌 기업과 160여 개 중소기업, 40여 개 우수 새싹기업은 신기술전시회를 통해 에너지 미래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장에 설치된 700㎡ 규모의

수소에너지특별관에서는 수소전기차, 수소전기하우스 등 수소에너지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광주-전남 출신 청년이라면 빅스포에서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를 눈여겨 볼만하다. 나주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디투엔지니어링, 케이피일렉트릭 등 40여 개 기업이 일자리 박람회에서 인재를 찾는다.

해외에서 초청된 바이어들은 지역 우수 기업과 수출상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50차례 열린 '국제컨퍼런스'는 학술대회, 전문가회의 등으로 꾸며진다. '에너지 리더스 서밋'에는 국내외 100개 기업 CEO와 CTO(최고 기술 책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첫날 오전 개막식

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꼽히는 차상균 서울대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도 다채롭다.

행사 이튿날인 7일 오후에는 빅스포 개막을 기념한 'KBS 열린음악회'가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리고, 행사장 밖 야외광장에서는 지역특산물 장터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또 테크니컬 투어, 대학생 초청 투어, 어린이 초청 투어 등도 행사 기간 동안 열린다.

무료 참가신청은 '빅스포 2019'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열린 '빅스포 2018'은 해외 4420명을 포함한 8만1236명이 참가했으며, 21건의 양해각서 체결과 15억8000만 달러(1조8900억원)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 등을 거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3.05 (+13.12)	금리(국고채 3년)	1.30 (0.00)
▼ 코스닥	621.76 (-5.17)	↓ 환율(USD)	1196.20 (-3.70)

## 전남도, 22개 중기협동조합 육성한다

### 조례 제정...중기업계 "환영"

전남지역 22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장윤성)에 따르면 전남도의회의는 이날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는 ▲3년마다 전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경영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및 '조합추천 소매수계약 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 담겨있다.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충북, 경

북, 부산에 이어 광역자치단체로는 4번째로 제정됐다. 특히,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소상공인 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 개발, 지역제품 공동 판매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윤성 광주전남본부장은 "전남에는 여수 오천산단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등 모두 22개의 협동조합과 1000여개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전남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인 지원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은행, 유관기관들과 보이스피싱 예방 합동 캠페인

### 안내장 배포 등 홍보 활동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광주 유·스퀘어와 목포역에서 광주·전남 경찰관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지역협력단체와 안내장 배포 등 길거리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남상무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총 69건, 7억 5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3분기 지역경기 '제자리'...수영대회·지역 축제에 숙박업 소폭 상승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철강·반도체·석유화학 생산 감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와 조선업 회복 조짐에도 올해 3분기 호남권 경기는 제자리걸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중 호남권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호남권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철강·반도체 부문의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의 경우 자동차·조선·음식료

품이 증가한 반면 철강·반도체는 수요 부진 등의 여파로 감소했다.

조선업계가 밀집한 영암 대불산단의 2분기 생산액은 58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6% 증가했고, 현대삼호중공업은 9월 초대형 원유운반선 1척을 신규 수주하는 등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서비스업 생산 부문은 2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주수영대회와 정남진장흥물축제 등 지역축제가 잇따라

열리면서 숙박·음식점업이 소폭 증가했다. 호남권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에 비해 확대됐다. 지난 7-8월 평균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2만4000명 늘어나 2분기(1만4000명 ↑) 보다 증가폭을 키웠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2000명·전남 1만명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2000명), 농림어업(7000명), 건설업(5000명)에서 오름세를 보였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4000명 ↓),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5000명 ↓) 취업자는 줄었다.

7-8월 소비자물가(월 평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 상승해 2분기(0.6% ↑)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 증감률이 지난해 1.6%에서 -2.9%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국제유가 둔화로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된 이유 때문이라고 한은 측은 분석했다.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전세가격은 광주는 하락, 전남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이 정 광주전남본부장은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전반적인 3분기 경기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지역 조선업은 신규 수주량이 늘고 철강·반도체·석유화학 생산은 감소세를 보여 부문마다 다른 특징을 보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 4개 기업 조달청 해외진출 유망기업 선정

전남지역 4개 기업이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G-PASS' (지패스)로 선정됐다.

지난 30일 광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이 선정한 올해 3분기 지패스 기업 40개에는 주식회사 현명(순천), ㈜엠에스(여수), 주식회사 매그나텍(장성), (유)송원이엔지(목포)가 포함됐다.

'지패스'는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지패스 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8년까지 ▲전시회·바이어 상담회 참가 ▲멘터(중간유통업자) 등록 ▲인찰서 작성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 '지패스' 기업에 선정된 순천 '현명'은 보안용 카메라가 주력 제품으로 미국을 거점국가로 두고 있다. 폴리메틸렌 등을 생산하는 여수 '엠에스'는 배트램, LED투광등 등을 만드는 장성 '매그나텍'은 호주, 목포 '송원이엔지'는 중국에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광주 지역 선정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올 4분기 전남지역 아파트 입주 '뚝'

### 강진·영암·목포 723가구 전년 동기 대비 62% 급감

올해 4분기(10-12월) 전남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 전남은 강진·영암·목포에서 4개 단지 723가구 가 입주 예정이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7만6402가구로, 5년 평균(10만2000가구) 대비 25.4%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은 5년 평균(1만1가구) 대비 19.3% 증가했다.

이 기간 광주 입주 예정 아파트는

2681가구, 전남은 723가구 등 12개 단지에서 3404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61가구(광주 1463, 전남 1898)와 비슷하다. 다만 지역별로 광주는 2배 가까이(1218가구) 늘었고, 전남은 절반이상(1175가구) 줄었다.

지난 3분기(7-9월) 7673가구(광주 3103, 전남 4570)보다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

4분기 입주 물량은 대부분 민간아파트다. 공공아파트는 행복주택 2개 단지 611가구에 그쳤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엘로우 시티**  
Yellow City

## 감성으로 노란꽃잔치를 표현하다

# 전국 문불여백일장

가을, 꽃, 산, 들, 강 이러한 자연들이 문학을 하는 문인들에게 최상의 소재가 되는데 우리 장성의 가을노란꽃잔치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어 글쓰기 아주 좋은 여건을 형성해 줍니다. 전국의 문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황룡강가에 모여서 글을 쓴다면, 우리 장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홍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10월 5일(토) 10:00**  
**장소 : 황룡강 공설운동장 옆 작은무대(소공연장)**

---

주 제 : 엘로우시티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 장성과 관계되는 작품  
분 량 : 문문-12행 이상, 산문-원고지 3매 이상  
시 상 : 학생부 부문 -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장려 5명  
일반부 부문 -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장려 5명  
※ 상금 : 장원 30만원, 차상 20만원, 차하 10만원, 장려 5만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접 수 : ws36910@hanmail.net 문 의 : 061-394-5500, 010-3605-3597